

99년

를 제안합니다



목차

- 선거학교를 제안하며
- 99년 선거의 의의
- 선거시기 이전 정책을 제안합니다.
 - 총여학생회론
 - 대학사회 성차별적 문화개선
 - 여성노동
 - 여성학 강의
 - 여학생 복지

일시: 1999년 10월 24일 2시

장소: 이화여자 대학교

주최: 여성노동, 살맛나는 세상

선거학교를 제기한 배경

1. 선거시기가 가지는 의미

선거는 대의제와 대중들의 수동적 참여밖에 유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선거시기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 우리의 내용들을 드러내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 목적이 다소 당선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학내의 대중들을 핵심대상으로 사고하면서 진행되는 일종의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는 그동안의 우리의 담론과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년 선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작년 여성주의를 표방한 많은 여성운동 단위들이 낙선했다. 그 패배 요인의 핵심은 그 동안 우리가 표방했던 '여성주의'라는 것이 선언적일 뿐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아니었는가란 평가를 조심스럽게 해 본다. 95년도부터 '일상의 정치실현'이라는 화두로 여성주의적 총여 선본이 구성되었다. 그 당시는 기존의 전여대협의 한계를 느끼면서 제기되어, 이전과 다르다는 그래서 새롭다는 대안적인 느낌과 정세적으로도 성정치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의 금기를 깨는 센세이션한 대중들의 반응으로 '여성주의', '페미니즘'은 학우들에게 충분히 어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학 강좌의 증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여성운동 단위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부하게 읽히거나 반동 뿐 아니라 제대로 동의되지 않는 단위에서도 '여성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의형상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여성운동 단위의 내용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부하게 읽히고 여전히 총여학생회라는 공간을 학생회와 동일한 공간으로 등치시키면서 학내와 무관한 활동만 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단 총여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차치해 두고라도 선거 속에서의 우리의 내용과 입장들이 얼마나 추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여성들의 억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는 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변화의 실험들을 무엇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이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란 평가를 해 본다.

선거시기가 된다고 대중이 정치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거시기는 그 동안 학생사회에 다양한 입장들이 분출되고 그로 인해 학내의 대중들이 귀기울일 준비를 하는 시기라 생각된다. 이런 전제하에 이 시기는 우리의 입장과 내용들을 세력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활동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시, 공간에서 정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선거시기 또한 그런 고민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2. 선거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당장 선거에 돌입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거시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의 활동에 구상이며 대중들과 공유하는 것이기에 대학사회의 변화와 기간 여성주의 여성운동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성운동 단위의 지향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이 유사한 현재, 여성운동 단위가 각개 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와 대안과 더불어 함께 평가하는 속에서 함께 변화의 흐름들을 예상하는 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전략들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한판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후속작업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논쟁마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선거학교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이나, 조야하게나마 선거학교를 통해 앞으로 여성운동 단위에서 채워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2000년을 전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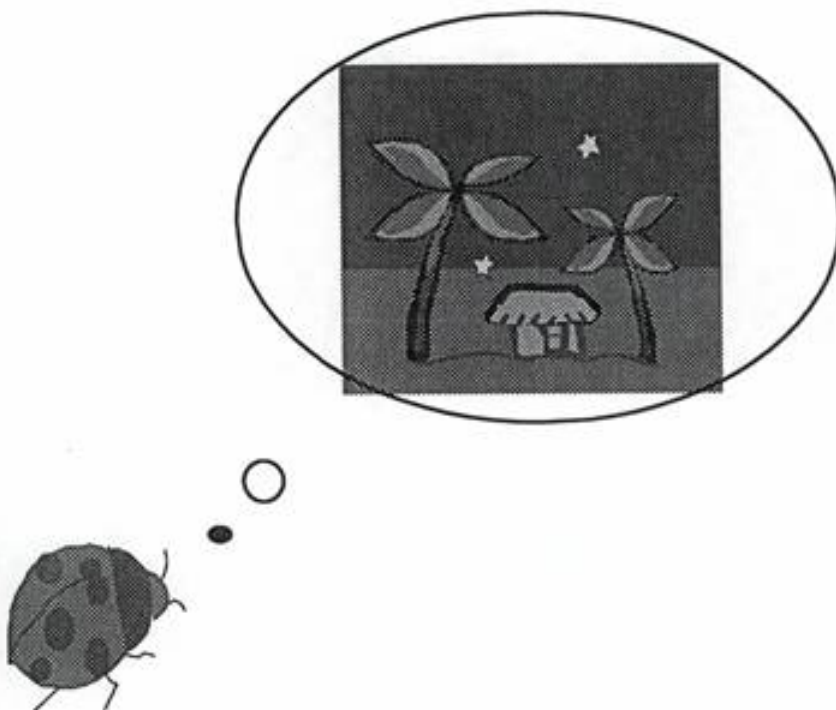
가. 99년 여성운동의 평가 속에서 2000년 여성운동의 전망을 구성한다.

세기말과 새천년의 사이는 이상한 기대를 불러넣는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말이다. 하지만 그냥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기간 여성운동이 자리 진행되어 왔는지, 이 길로 곧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올해 선거시기에 우리가 이야기 할 내용은 내년 우리가 할 활동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미래이다. 하기에 진지한 평가 속에서 2000년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2000년의 전망을 구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한치 앞도 모르는데 다 안다면 재미없지"라는 '타타타'의 가사처럼 완벽한 전망과 전략들을 내올 수는 없는 문제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미래는 현재를 직시하는 속에서 예견될 수도 있다.

나. 동시다발적인, 공세적인 문제제기는 현재의 여성운동 단위의 세력화 한다.

작년과 재작년 정말 개나소나 '성폭력 학칙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들에게 갑자기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생겼기 때문일까? 그렇다고 보기에선 작년 총학생회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무색해지지 않는가? 사실 그보다는 성폭력 연대회의의 활동이 대중들로부터 동의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자치규약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또한 성폭력 학칙제정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이 더 적절할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들의 공약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제제를 가할 수도 없었고 단순히 너희가 하면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수동적인 반응들 뿐이었다. 한가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대중들에게나 운동권들에게 있어서나 성폭력에 대해 담론화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효한 기제였다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의 공세적인 선거시기 활동이나 정책제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99년 선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한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어떤 공간일까? 사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전에 공간과 재정이라는 물적 기반을 가진 총여학생회 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논의로 넘어가 버리곤 한다. 하지만 이런 질문 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이후 대학사회의 변화와 기간 여성주의 여성운동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는 입을 열기가 매우 난감한 문제다. 아니 입을 열더라도 헛다리 짚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기에 조야한 수준에서라도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찝찝하게나마 기간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와 현재를 조망해 보는 속에서 몇 가지 정리되지 않는 과제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기간 여성운동은

한편 이후 여성주의의 모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모두들 미궁에 빠졌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의 지향은?, 지금의 우리의 활동에는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등등 모든 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의 활동, 그 당시의 반정립 속에서의 문제제기 방식과 내용들은 대학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여성주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만들고 과 내용은 학생운동권 또는 전여대협식의 여성운동에 대한 반정립 속에서 구성되고 진행되어 왔다. 활동들을 구성하는 속에서 이제는 처음의 문제의식마저 퇴색하고 있으며, 이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여성주의가 무엇인지의 공백이 보이기 시작했다.

1) 여성운동을 하는 주체의 문제

-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96 - 97년의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유쾌한 기억이다. 그때는 사람들도 많았고 단위들도 많았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의 여성운동의 거듭나기에 위기감을 느낀다. 근래 들어 저학번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저조하다. 여러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타 운동 단위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고실업 사회를 도래하면서 대학은 취업인 양성소와 경쟁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학생들은 학점, 자격증, 어학연수, 토익, 토플과 경제위기 이후 아르바이트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운동권인 사람들이 우매하거나 희생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나마 여성운동의 경우 자신의 문제로 한 두 번씩 경험하는 속에서 종종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자신을 만들어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마저 이렇게 강요된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해 떠나가거나 졸업이후 사회 속으로 편입되어 가면서 후배들 역시 고스란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일상의 정치화!! 나로부터 시작한 운동만이 여성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자유롭지 못한 선택 속에서 새내기들에게 아니 현재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여성운동은 과격하지 않은 하고싶은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만 읽혀지고 있다. 여성학을 공부할 수 있는 동호회의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운동은 귀찮다. 대자보도 써야하고 선전전도 해야하고, 사업기획과 이후 방향을 가지고 흐름도 만들어야 하고, 회의도 빠지지 말아야 하고, 학교와 싸움도 해야하는 등..... 하지만 강요하거나 화낼 수 없다. 그러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인간들의 자발성을 신뢰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

는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여성운동을 시작했는가? 여성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일상의 정치화란 내가 동의 할 수 있는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문제만이 우리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20년이 넘게 길들여진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적인 영역만을 고수하고 그 안에서만 운동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을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적인 문제들에서 어떻게 개입이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2) 체계상의 문제

- 조직의 위계서열에 대한 반대. 그것이 체계 없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는 개인을 억압하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체계 없이 모임을 운영할 수는 없다. 그 동안 다양한 실험, 예를 들어 대표없는 체계, 팀별 체계, 등이 비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개인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음은 운동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고민 없이 구성원들에게 자발성만을 요구할 경우, 결국 나태해지거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짐을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자발성만큼이나 운동하는 사람들간의 책임과 각자의 학번이나 경험에 맞는 해야할 일들이나 서로간의 약속한 일들을 꼭 지키는 등의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하고 서로간에 당당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자발성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굴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역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현재 그 동안의 실험들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 내의 특수성에 대한 물이해, 그것은 전망의 공백과 연대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대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상대적으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육개혁이다 뭐다 해서 보이지 않는 강제들이 생기고 학생회칙이나 교칙상의 가시적인 강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제도권으로부터 직접적인 관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점열도 존재하지 않고 명분을 위한 측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러한 상대적인 자유로움은 기득권 층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관성화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비판 등의 급진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위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 전망과 이론이 부재한 여성운동판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여성주의에 대한 궁금종과 동일한 맥락이다. 우리는 이론이 없다. 대학사회의 변화나 정세읽기를 통한 전망 또한 구상하고 있지 못하다.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가 안정적인 기반이 없고, 매해마다 단절적인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할 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올 일년을 위한 여성해방"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서술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수백 년의 지난한 싸움의 성과가 지금이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싸워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의 성과를 위해 한해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반문을 해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전략, 방법)' 보다 현재 더욱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담론, 내용)'다. 둘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슈화이팅의 형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세적인 대응과 동시에 차근 차근 여성해방을 준비해 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 연대체?? 연대가 뭐야??

성폭력 연대회의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단위들이 줄어들고 있다. '대학 내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여노대련) 역시 작년에 잠정적 휴지기에 들어갔다. 또한 작년 여성연대 한판에서의 관악여모의 발제

문 속에서 '관학여모의 체계가 오히려 무체계의 방만함으로 귀결되었다.'라는 토로와 더불어 요근래 들은 소문에 의하면 관학여모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연대란 과연 불가능 한 것일까? 단위의 안정과 자활력 강화와 연대는 배치되는 문제인가?

확실히 아니다. 96-97년 아니 98년까지 만 해도 성폭력 연대회의는 여성운동 단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였다. 그 단위가 가진 공신력과 담론화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학내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문제제기 할 수 있었고, 또한 한 학교 차원에서 제시되기 어려운 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연대에 대한 상의 모호함과 그 동안의 연대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필요에 의해 구성된 연대에 대한 상 이상의 고민의 멈추어버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대체가 대학사회 속에서의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내가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의 활동에 얻을 것이 있는 필요한 것이 있는 공간으로 사고되어졌다는 것이다. 하기에 연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거듭나게 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얻을게 없는 공간으로 사고되면서 쉽게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글이나 말로는 단위의 안정과 연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재는 더 쉽게 "단위가 더 중요하지"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형식이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가 공통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2. 대학과 사회, 겉모습은 여성주의를 포장하고 있다.

앞서 평가한 것들을 염두해 둔 속에서 그럼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란 질문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잠시 앞서 언급한 것들을 다 잊지는 말고 잠시 접어둔 상태에서 사회와 대학의 변화들을 살펴보자. 너무 많이 앞서가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품화,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낳고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한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고 정말 여성들에게 세상은 많이 좋아졌을까?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한 '마지막 전쟁'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을 겪은 여성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공개 자보화하는 장면이 매우 통쾌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마지막 전쟁'의 경우도 능력있는 여성으로서 자기 삶에 소중함을 아는 중년여성을 중심에 놓은 설정도 주목해 볼만하다. 올 추석의 경우 온갖 TV 쇼나 드라마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남성들이 등장하곤 했다.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입담 좋은 구성애 아줌마의 '아우성' 신드롬을 기억할 것이다. 그 동안 음성적인 담론으로만 존재했던 '성'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면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역할과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법제도의 측면에서는 얼마전 제정된 '가정폭력 금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가히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실제 그 동안의 가정폭력의 사례들이 가정의 문제나 가정 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인식되었는데 제정 이후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도 "안방출입금지 명령, 구속등"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신문지상에서도 버젓이 가해자의 처벌 사례들이 실리고 있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부분의 여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으로서 얼마전 광고에서도 보았듯이 '남녀 차별은 미성숙한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마지막 구절과 더불어 고정적 성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제기로 성차별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절감케 충고하고 있다. 정말 사회는 많이 변했다. 이제 가부장적,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시대에 뒤떨어진'의 의미로 읽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매체 속의 여성상의 변화나 성에대한 담론의 공론화 법 제정등 여러 곳에서의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 이면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우선 해고되고 있고, 반면 남편의 보수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어 지면서 저임금, 불안정한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가사일과의 이중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축소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공적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양육, 보살핌 노동 등의 재생산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아우성 식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법 개선의 측면에서도 법안의 긍정정보다 실제 행정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제2, 제 3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 '99년 여성관련예산은 일반회계(약 80조원)중 0.29%(2천377억원)에 불과하며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인 142억8천만여 원에 그쳐 정책실행에 미흡했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활성화나 집행의 측면에서의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성평등적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진일보한 평등적인 정부 이미지 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현재 일어나는 가시적인 변화와 실제 모습은 명확히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져야 할 상식, 남성들에게 에티켓용으로서 보여지고 그려지는 '페미니즘'을 수용하게 된다. 또한 '페미니즘'이 일상에서 남용되고 오용되면서 상품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식성은 '페미니즘'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세 속에서 도구적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페미니즘의 상품화는 여성들의 허위의식을 만들면서 사회내의 충격 흡수층의 역할을 수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라 함은 사회에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논리(= 가부장 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기에 IMF시대 그리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상품으로서 페미니즘은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지위 상승과 평등이 아니라 현재 사회를 만드는 방식, 남성의 상도 개선해 가면서 남녀 모두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는 무단 삭제되고 편집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편집된 '페미니즘'은 IMF이후 강화된 가부장제적 사회 속에서 보수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들도 편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페미니즘'의 알맹이는 빠져버린 것이다.

페미니즘이 상품화되면서 일어나는 보수주의적 경향은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현실을 낳는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다른 세련된 방식의 억압이 나타나면서 실제 많은 수의 여성들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반여성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은 없으나) 일상속에서 드러내 놓고 비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소외되고 주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대학의 여대생, 일상에 스며든 성차별

대학 내에 여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적으로 치자면 주체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정이나 강의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생리대 자판기나 휴게실이 설치되었다.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고 있으며 이 강의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 교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사회 역시 페미니즘의 상품화 논리 속에서 진일보한 대학사회의 모습,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학생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제한들이나 원칙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학교당국이나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일상에서 유행처럼 나타나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예를 들어 조별과제나 공적으로 만났을 때는 동료지만 학교 행사나 각종 모임 등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여학생을 대등한 위치의 '동료'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대하기 보다는 관계의 대상으로 파악해 버리는 비인격적인 관계구조를 낳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대학 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일상적 문화 속에서 드러난다. 여학우가 아닌 대상화된 여성으로서 여전히 꽃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파벌 장기자랑 속에서 강간이나 성희롱의 장면들을 연출한다던지 여학우가 많은 과에 대해 회통을 하는 경우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서울대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학생에게 제적의 처벌을 준 일이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진일보한 모습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대학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실감케 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반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사건(우조교 사건)이 슬그머니 '5백만원' 배상판결로 정지되자 책임용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양면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다수를 점하는 여학생들의 복지는 과거의 상태에서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으며, 대학원 진학이나 과정 중에도 차별적인 성문화의 관행은 여전하다. 게다가 여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학교측의 대책도 부실한 현실이다.

대학사회는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가시적인 분위기의 변화와는 다르게 성차별적인 문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수적인 증가가 단순하게 머리수 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 그녀들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동안 실제로 대학은 여자를 초대했을 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데는 인색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의 수적 증가에 대한 대학사회의 반응이 그 이 중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여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여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남근상을 세우기도 했으며, 작년 서울대, 홍대 미대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정원에 남학생 할당 비율을 정했다고 한다. 유능한 남학생은 자기의 대를 이을 '재목'으로 보이지만 여학생은 아무리 유능해도 지나가는 나그네로 투자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제 대학사회의 상품화된 페미니즘으로 인한 오해들을 종식시킬 때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명처럼 떠 다니는 여학생들의 차별적 경험들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누구의 시선에 걸리는 객체"이거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로 그려지고 보여지는 여성상을 거부하자. 이제 스스로의 '시선'으로 대학을 바라보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따라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3. 그래서 선거학교를 통해서

- 잠시 멈춰서자.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정말 지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평가하는 속에서 출발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대학 내 여성운동의 위기라고 한다. 이번 선거시기를 통해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쓰여진 매력적인 선거정책을 내놓고 한해 사업 잘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일년이 끝난 후 호탕한 웃음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내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선거시기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운동(運動),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계속해서 고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예견된 미래란 존재하지 않으나 변화를 파악하는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기에 각 학교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의 변화상을 민감하게 읽고 20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0. 2000년을 바라보고 있는 1999년의 우리들...

우리는 또다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갈수록 재생산되지 않고 있는 여성운동단위들의 열악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총여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지 왜 당선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려는 총여학생회는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인지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1. 기간 총여학생회 평가

-이 팀에서는 이제껏 논란이 되어 왔던 총여학생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부분만을 간략히 평가하기로 했다. (어투가 다소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시길. 어휘력이 매우 부족해서리... ^_~)

1) 체계에서의 평가

학생회의 체계에서 여성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비판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던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것, 강압적이라는 것, 대의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회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함에 우리가 표방했던 여성주의적 총여학생회의 체계는 그것에 반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었다. 이를테면 수평적이고 권력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대표성을 띠지 않는 자치적인 질서로의....

물론 이러한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더 나아간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평적이고 권력적이지 않다면 여성주의적인 수평함이란 어떤 것인지, 여성운동내의 자유로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성주의를 외쳤던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수평적이고 권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체계 없음과 방만함으로 탈바꿈하였고 자유로움이란 활동의 우위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과 배려의 우위로 인식되어 졌다. 그리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여성주의적이지 않다는 낙인이 찍혀버리고만 것이다.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쳤던 여성주의적 구조는 기존의 질서를 반하는 데에만 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소외와 배제를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2) 활동상에서의 평가

우리는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며 아주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이것은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하며 학우들에게 비판을 받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다시 말해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학내에서는 그리 좋은 평(?)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토크 했는데 도대체 총여학생회가 한 일이 무엇이나? 실제로 그런 기구가 존재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생리대 자판기 하나 설치가 되지 않았다."

조금 단순화 시켜서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학우들의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이렇다. 왜냐하면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복지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총여학생회라는 기구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기 때

문예, 그리고 여학우들의 요구를 정치와 복지의 이분법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좁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래서 학외의 활동들과 학내의 활동들을 어느 정도 구분지었고 학외의 활동들을 학내에서 벌여내는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시켜왔다. 이 지점에서 학우들은 "총여학생회는 학내의 여학우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사회적인 일들만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상의 정치화를 학우들과 소통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의견 피력만을 해왔던 것이다.

2. 그렇다면 2000년 총여학생회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리는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을 하는 공간이라'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활동을 펼쳐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라는 것을 커다란 화두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풀어나간다면 복지라는 사안은 아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전반적인 동의하에서 우리의 담론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정치와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총여학생회를 잡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고민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어떻게 확장하고 세력화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총여학생회가 여성운동을 하는 공간이라면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 공간에서 활동하고 개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은 학생회나 여성운동의 공간이나 라고 하는 설정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총여학생회가 기구가 아닌 여성주의적인 자치질서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활동하였지만 그것의 근저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이분법적 사고의 딜레마가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정치와 복지의 이분법을 지양하면서도 시선은 정치의 태제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일상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학우들의 일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생리대 자판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주 단순히 그것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복지 공약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다. 그것은 총여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동안 우리가 총여학생회를 고민하며 잘못 생각했던 지점이다. 여성운동을 하고자 하는 공간이라면 어떤 문제이든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조차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었고 그 결과가 바로 98년 선거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총여학생회라는 공간을 철저히 여성운동의 공간으로 사고해 보자.

어쩌면 이 글에 반박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태껏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총여학생회는 학우들에게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여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의 공간이라고..." 총여학생회는??

여학생회!

1. 대학 내의 여성현실

얼마전 '남녀고용 평등법' 내에 성희롱의 조항들이 명문화 되었다. 그 후 TV, 신문지상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사회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인식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대학내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교내에서 밤늦게 가로등도 없는 길을 가는 것은 여전히 공포스러운 일이고 최근들어 화장실에 비디오크를 몰래 설치한 사건들이 전해져 오면서 화장실 안에서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지나가는 말로 흔히 "너희가 무슨 공부냐. 여자는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나 가면돼."라든지, 최근들어 "요새는 수능으로 바뀌 공부 열심히 안해도 잘만 찍으면 되니까 학교에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자가 많아지면 학교가 망한다." 등 등의 얕아있는 여학생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잘나가는 남자애들 들어올 자리를 뺏었다고 여학생들에게 학점을 잘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할만큼 여학생들의 일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직 학내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차별적인 경험을 해본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의 조항이 있는데 이 법에서 '교육'이란 1) 초·중·고등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직업훈련촉진법 등에 의해서 설치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2)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취업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학습,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금지사항은 피교육자의 선발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육평가등 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성별로 교육대상인원을 배정하거나 해외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제시, 교육내용구성,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그리고 교육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의 경우 성희롱도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용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올 6월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교육기관에서 세부계획에 포함시킬 주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 성희롱 예방교육(별첨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참조)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등
- 고충상담원 지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 활용 모색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학칙제정에 있어서도 이미 총여나 여성위원회등 학내 여성운동단위에 문의를 해 온 상태이다. 사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법이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얼마나 잘 긁어 줄지는 미지수다. 자

것 잘 못하다가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치기에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오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는—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한 “성폭력 정책 공책회”에 보면 몇 개 학교의 학생처 인터뷰가 실렸는데—곳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안은 대학내 구성원으로서의 여학생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이며 대학내 성차별적 문화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진정 대학사회의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대학내 성폭력, 성차별 근절을 위한 우리의 행동

— 성폭력 학칙제정

대학내 휴대폰 수업중 규제 정책이 실시 된 후 많은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는 등 행동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 법은 처벌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사용상에 있어서 인식전환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 학칙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의 측면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나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제기 속에서 내실있고 효과적인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다. 하기에 학칙제정운동은 보다 대중적인 방법으로 광장 속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학칙 제정을 위한 배심원 제도 도입

학칙이 학생회, 여성운동 단위,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속에서 논의되고 수정될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양 필수화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처벌 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서 음성적으로 또래집단 속에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성에 대한 많은 편견들을 갖게된다. 실제 성폭력의 경우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과정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또한 20년이 넘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깨는 어려운 작업으로서 일회적인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성폭력이 일어난 후의 대응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일회적인지 않는 보다 구체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대학교육과정에서 필수화되어야 한다. 하기에 현재 8학기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양필수와 되어야 하며 사회봉사와 같은 교과과정 속에서 성폭력에 관련한 사회단체나 사회시설의 경험의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상담소 개설

96%의 여대생들이 일상에서 성폭력을 느끼며,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과 함께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현실 속에서 여성인권 확보와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상담센터가 건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상담소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내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작년 모 학교에서는 학내에서 성폭력에 상담소 개

설의 요구 속에서 학생 상담소의 상담 내용으로 첨가하여 월요일은 진학 화요일은 . . . 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 정해진 요일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시에 증거확보라거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쉽고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소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홍보를 위한 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도 요구된다. 하기에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담공간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상담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대학사회내에 학생사회의 원칙을 만들므로 해서 일상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시도이다. 작년 많은 학교에서 자치규약 제정운동이 진행되었다. 말그대로 우리들의 규약을 정하는 문제이기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운영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기에 규약제정의 의미보다는 공동체 문화를 바꾸어 가는 시도여야 한다. 학생회와 함께 자치규약 제정 테이블을 구성하겠다. 또한 규약과 더불어 집단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러 행사에 규약제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다.

★ 새터 내부규약을 만듭시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대학사회를 처음 접하는 기회이다. 사실 성폭력의 경우 물지각한 일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단적인,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서울대에서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자면 버스안에서 새내기인 어떤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던 도중 웃웃을 베푼 일이 있었다고 한다. 무심결에 한 행동이라 할 지라도 함께 타고 있던 여학생들의 경우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처음 들어온 새내기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용감함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얼마나 그런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인가, 아닌가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언제나 새터에서는 다양한 성폭력들이 일어난다. 이제까지 새터의 문화는 여성들을 타자화 한다. 새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단적인 활동들, 특히 과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과격함과 공격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타파에 대한 적대적 경쟁 심리가 장려된다. 무엇보다도 힘의 논리가 우선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분위기에서 여학생들은 뒤편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여자 후배들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과의 꽃 정도밖에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는, 노골적인 말이나 행동보다, 여학우가 과 성원의 한사람으로 적용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새터는 분명 새로운 대학의 구성원들을 만나고 거칠게나마 대학생활을 구성하는 시간이다. 이런 공간 속에서 성폭력을 느낀다거나 배제감을 맛보게 되면서 좌절한다는 것은 새터의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이다. 새터에서의 내부규약을 만들고 이를 홍보하는 속에서 처음 들어오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예방과 함께 만들어갈 성평등적인 공동체 문화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성평등한 교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소통의 장을 마련!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대학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교육이란 매개를 통해 상호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수님일지라도 여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교사 학생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학생들조차 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불쾌감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수의 성

차별적 언행이 실제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다. 교과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들의 성역할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들도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남녀교육 평등법(1994)이 제정되면서 성, 이종, 민족, 신체장애나 연령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여성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 성평등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성 평등성에 대해 교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Jo Sanders, 1996), 학습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교육학 전략 (Caroline Grpps, 1996)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교수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실사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교수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성평등한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는 말이지..

신규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와 고용상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재 경제위기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취업률은 저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남녀 공학이나 여대나 여성들은 원서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고, 별다른 대안없이 그저 토익과 컴퓨터등의 능력과정만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작년 "고용, 승진, 임금"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승진, 임금 상에서의 가산점제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고용상에서 군복무 가산점제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현재와 같이 취업의 문이 좁은 상황에서 '국가의 선별 기준에 맞지 않는 남성이나, 장애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는 여전히 '능력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말로 현재 실업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실업의 절망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IMF 이후 열세를 면치 못하던 여학생 취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 98년 상반기 졸업생중 순수 취업률이 53.1%에서 99년에는 60.6%로 7.5% 상승했다. 숙명여대도 진학을 포함한 취업률이 지난해 63%에서 올해는 7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 9월 1일 조선일보

정말 여대생들의 취업현실이 낯아 지고 있는가? 고학력 여성의 '하향 취업'에 관한 연구(1999)에 의하면 실제로 대졸 여성의 경우 10년간 대졸여성의 대기업 채용규모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90년대 이후 대졸자 전체 취업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취업이 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이 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주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주변에 선배들을 보면 계약직이거나 예전 선배들 보다 임금이 낮은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여대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만으로는 여대생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대부분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보다 더욱더 대학 졸업한 여대생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직장, 노동조건이 알맞는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자신이 일류대가 아닌 '학벌'과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성별인 '여성'임을 자각하게 하면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공기업과 대기업 같은 핵심노동시장의 진출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 결국 여성의 학력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자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철저한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을 해야 한다든가, 취업보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대기업의 대졸여성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든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극복방안을 제외하고 여성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철저한 취업준비를 해야한다는 노동준비과정에 대한 지적과 눈높이를 낮추라는 하향취업에 대한 권고이다. 실제 한국경영자 총협회 산하 고급인력정보센터에서 제시한 "재취업, 구인, 명퇴자 가족 행동지침 10제명"의 하나가 고학력자에게 취업을 위해서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제시하면서 하향취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강조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일보 1998.2.26) 이런 하향취업의 경향은 높은 이직율, 나이와 경력의 불일치 현상,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부정적인 고용경력을 남게돼 결국 이후 또 다시 하향취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극단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

우리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수치로서의 신규여성실업문제에 대한 개선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하향 취업의 덫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불안한 전망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로서 절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일로는 더 이상 신규 여성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대학총론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지만 정부 관련 기관, 학교 기관의 여대생 취업과 관련한 조사 자료는 여성들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부나 학교측에서는 계속해서 허구적인 조사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여성취업의 현실을 은폐시키는 한편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이 환상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대생들이 감수하고 있는 기대와 절망은 허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어떤 통계자료보다 현실적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의 대학사회를 둘러보자.

좁은 취업문을 쫓기 위한 여대생들의 대응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 전략 세우기'이다. 그리고 이는 자급히 개인적인 필사의 노력들로 드러나고 있다. 자격증, 토익, 토플이 취업시 객관적인 조건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여대생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도서관'에 쏟아 부는다. 혹은 결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대생들이 결혼 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의 자기 전략은 결코 다양하지 않다. 다양한 선택지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여성에게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획일적일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갑갑한 자기 경험들을 소통하고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세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전략들이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여대생의 전략은 장기적 전망이 있을 수 없다. 앞서 서술했듯이 가부장제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킨다. 여대생들이 필사의 노력으로 취득한 자격증, 높은 점수는 남성들의 그것과 경쟁 할 수 없다. 여성 채용률은 현실적 요구와 무관하게 턱도 없이 낮고 신체 조건, 외모 등의 조건은 여성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객관적 조건들보다 우선한다. 결혼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가사노동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기혼 여성이 직장 내 정리해고 일순위가 되고, 비정규직화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결혼은 이중의 덫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자기 전략을 세우기 까지의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 장기적 전망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면 사회구조의 모순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대생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국가, 기업의 기만적인 정책과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음모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종으로 제기되는 "창업"의 경우도 여성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거래의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채용이 줄어들고 있음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들로 여학생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혹은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무수한 억압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운 좋은 소수가 되리라는 환상을 깨고 자신의 위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개개인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야 가져야할 것이다.

3.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대학내 여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학생 사회진출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구직에 있어서의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파악한 속에서 여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여학생처와 함께 구성할 것이다.

— 취업박람회 유치시 여학생의 구직인원과 구인 기업간의 비율 일치!!

매년 취업 시즌이 되면 교내에서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취업박람회는 말 그대로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곳을 찾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장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업의 구인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은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 비해 낮았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구직하기 이전부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미리 포기해 버리거나 하향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기에 취업박람회 유치시 여학생의 구직인원과 구인기업간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은 고용상의 평등과 여성들의 진출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운동 단위, 취업상담실, 학생처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한 학교 차원의 항의해야 한다.

작년 군가산제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 대학내 구성원들의 부당함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진출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여성운동 단위, 취업상담실, 학생처를 중심으로 취업과정 상의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 여학우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내 테이블의 구성

학교의 취업 정책은 여학우들의 현실적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소수만을 걸러내는 국가, 기업의 취업 정책이 그대로 학교의 취업 정책에도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학생회 단위 역시 청년실업을 이야기 하기는 하지만 이 속에 여성 실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다. 여성 운동 단위, 학생회와의 학내 연대체는 여학우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여대생 취업 문제와 관련한 고민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 이는 분명 성차별이다.

-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결혼을 금하라!!

<사건개요>

농협은 98년 한해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바람속에서 막연히 1,2차에 걸쳐서 2,150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부부 중 한사람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성(남편)근로자가 순환명령휴직을 해야 하고 순환명령 휴직을 한사람은 2차 구조조정에서 0순위'라는 소문을 회사내에 퍼뜨렸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 사내부부중 남성근로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공공연히 "사내부부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이 된다, 부인이 명예퇴직하면 1차에서는 물론 2차에서도 남편은 구제된다,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사실상 부인인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명예퇴직신청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의 결과 총 762쌍의 사내부부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그중 여성근로자가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752쌍중 1명씩 퇴직한 가운데 91%인 688이 명예퇴직을 당하였다. 사내부부 외에 명예퇴직당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총 명예퇴직당한 1932명이 되며 이중 명예퇴직한 여성 중 1,056(66%)가 정규직의 약 50%에 불과한 임금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

이에 농협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인사책임자는 처벌과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모두 원직복직되어야 할 것은 주장하며 '김향아, 김미숙씨'가 부당해고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 사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우리의 입장>

농협이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발 기준으로 정한 상대적 생활안정자 가운데 유독 사내부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부부 중 한사람 (특히 남편)을 불모로 여성들을 해고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간접차별인 것이다. 다시말해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인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비가시적이고 체계적 차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도적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면 기혼 뿐 아니라 미혼 여성들도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농협 측의 입장은 여성들의 평균적인 근속연수가 거의 다된 여성들이기에 학령전 자녀를 둔 그들이 조만간 퇴직을 할 의사가 있었던 차에, 13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받아 퇴직을 하는 것이 정리해고로 퇴직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집에 있던 남성의 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도 취업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본다면 이러한 논리는 모순이다. 그리고 역시나 "여성의 본업은 가정이다"라는 이데올로기로 필요에 따라 정규직에서 해고로 해고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임금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타겟으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을 택한 것이다. 90년 초부터 여성들의 비

정규직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계약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신규취업자들의 경우도 많은 수가 임시직,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1. 경제위기 이후 늘어나고 있는 간접차별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간접차별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입직과정시 공고되지는 않았지만 여자를 뽑지 않는 경우, 불공정하게 여성들을 최종 면접시 탈락시키는 경우등 입직과정 상에 결과적인 차별의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농협 사건은 비단 그 부당해고 만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들에 대한 차별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부당해고 사건은 결과적인 차별을 초래하는 교묘한 방식의 다양한 간접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결혼을 하지 않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수한 논리를 깨야한다.

현재 여대생들의 90%이상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속에서 여대생들은 취업과 결혼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부당해고가 이야기해 주듯이 사회속에서 결혼과 직업은 분리되지 않은채 작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작동되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 속에서 결혼은 기업의 정리해고 실행 전략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해 준다. 이러한 사례들이 경제위기 이후 자행되면서 이혼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작동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수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3. 비정규직 외의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이제 우리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자.

현재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의 약 30%에 불과한 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해고와 그들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내년 농협에서도 500명의 계약직을 신규로 뽑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임금의 유연한 노동력인 것이다. 신규채용의 경우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거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반적인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시작을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여성학 강의의 현실

여성학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여성학은 공적인 영역에서 성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권리 확보, 일상생활의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억압의 조건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학문내적 규율과 정체성을 고집하던 기존분과학문의 편협성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여성억압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실천적, 이론적 학문으로 여성학은 여성들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학강의가 개설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얼마전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차별개선 교육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여성학 강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페미니즘, 여성운동'이 시대적 변화나 상품화 경향에 따라 여성학의 양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던져본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여성학 강의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에 의존하거나 여러 교수가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팀티칭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여성학 강의가 비전공자의 의해 진행되면서 페미니즘의 왜곡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의 접근으로 실제적인 인식전환이나, 실천적 문제제기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세대에서 진행한 여성학 강의 평가 내용을 보면 현재 여성학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학 수업의 목표가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 정립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적 주제 형성이라고 인식했던 응답자들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수업의 목표를 전문적인 지식습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학 수업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피상적인 이론을 열거하는 수업내용에 반발을 나타냈고, 수업에 의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 '여성학의 비전업, 어떻게 할 것인가?' 中 연세대 여성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여성학 강의는 여성의 문제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성적인 문제와 사회이론의 비판적 접목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학 강의는 실천학문으로서 특정지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억압적 조건을 인식하고 이러한 모순 극복을 중심으로 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실행되고 실험되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여성학 강의를 위하여

— 여성학 수업은 여성학 전공자가 가르쳐야 한다.

여성학의 경우 개설되는 학교의 경우 교내 교수들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학 강의에 있어서 운영의 비체계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내용의 반복과 혼동등이 이미 진행한 속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내용적 체계와 여성학적 관점을 가진 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

— 여성학 강의의 질적 상승을 위한 학교측의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학 강의의 경우 기존의 대학강의가 갖는 일회적이고 수동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려는 긍정적인 시도

가 개인적인 강사의 노력이나 헌신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의 지지,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학 강의의 체계적이고 여성해방적인 강의와 강의의 질적 상승을 꾀해야 할 것이다.

★ 수강인원의 조정, 특강 등 강의지원 비용 제공,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 배정, 여성학 담당 조교 배정, 여성학 과목 개설과 관련된 협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학과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여성학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은 현재의 모순된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들을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으로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간, 다시 말해 각 학교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그 학교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여성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학문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지역사회와의 성 상담 보조자 혹은 여성인권위원회 혹은 여성학 연구원, 성폭력 상담소 등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시한 네트워크 망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학생들의 대학내의 일상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사회 속에서 모성보호나 생리휴가들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대학안에서는 생리대 자판기 하나 변변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보건소라고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여학생들이 생리통이나 여타의 이유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이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은 계속해서 침해받아왔다. 하지만 대학내 여학생들은 단순한 짜증으로 반응을 보여왔고, 학교측은 재정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야 하는 고민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당당히 주장하자. 여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직적인 권리를 구성하자.

— 여학생 휴게실 확충

여학생들에게 대학의 자유로운 곳만은 아니다. 쉽게 담배를 꺼내어 필수도 없으며, 성폭력의 위협으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청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런 여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공간의 의미는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조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과 동료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일상에서 느꼈던 성차별적인 사례들을 이야기 할 수 없었고 이를 함께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 기존에 있는 휴게실 공간에 사물함과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생리대 무상공급 요구

/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금 현재 1/3이 생리중이다. 이는 여성들의 일상이며 사회를 유지, 재생산 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다. 하기에 이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인 일이다. 하기에 학내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무상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 외진 화장실에 비상벨 달기

외진 화장실은 낮이나 밤이나 여성들에게 공포를 준다. 기간 여러대학에서 일어났던 일로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 훑쳐 보는 일도 있었으며, 화장실내에 성폭력 사건쯤은 원만한 외진 화장실에서는 한번쯤 일어나는 일이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에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은 여성들에게 또하나의 자유로운 공간일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위협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도 위배되지 않는가?

대안은 만들어 져야 하고 이런 불쾌한 일들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외진 곳에 가로등 달기: 위와 유사한 측면에서 당연히 제기해야 할 것이다.

— 여성들 전용 문화공간, 실내 체육공간을 마련. 체육도구 대여(예, 배드민턴 탁구채 등)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체력적으로 여성들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집단적인 남성들의 문화 속에서 위축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용공간의 마련은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